

국외출장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글로벌전략연구본부	성명	한덕훈	직급	연구위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업무협의)					
관련사업 (예산항목)	○ 출장목적 : FAO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전문가 국제 워크숍 및 역량 강화교육 참석 (※ FAO로부터 초빙됨, 숙박비, 항공료 제공됨. 상기인은 2021년부터 FAO 청색어항 이니셔티브에 전문가 및 한국 focal point 로 참여해옴) - 한덕훈 연구위원 : “한국의 해외 어항개발의 현황과 국제협력 시사점-가나, 세네갈 사례 중심으로” 발표 및 토론, 2일차 세션 좌장(잠정), 3일차 향후 협력 방향 논의 ○ 관련사업 - 「해양수산 학연 연구 사업 (FAO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협력)」(일반사업)					
	사업 계획 상 예산 반영 여부			■ 반영 □ 출장지 대체 □ 해당없음(수탁)		
	성명	보유 마일리지		활용계획		미활용 사유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계획	한덕훈	51,000		활용		해당 있음 (주최 측은 이코노미 항공권 제공하나, 4만 마일리지 차감사용하여 업그레이드함)
	출장기간	2025.02.08(일) ~ 2026.02.14(토) (5박 7일)			출장지	스페인(비고)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02.08(일)	한덕훈 연구위원	부산(07:55) → 인천(12:10) → 마드리드(22:15) → 비고(23:35)	이동(항공 및 차량)		KE 1404 KE 0913 (업그레이드) IB 0473
	02.09(월)	스페인 비고		● 오전/ 10:30~13:30 - FAO 전문가(가치사슬팀) 업무협의 - 청색어항이니셔브 워크샵 구성 협의 (스페인 비고 항만청 참여) ● 오후/ 15:30~18:00 - 유럽어업통제감시청(EFCA: European Fisheries Control Agency) 업무협의 - 유럽어업통제감시청의 유럽 해역에서의 감시활동 및 아프리카 등 제3국과의 협력 현황 및 사업		
	02.10(화)	스페인 비고		<워크숍+교육 1일차> ● 오전/ 09:00~14:00 - 청색어항의 이행, 필요성, 통합적 접근법과 계획 - 이해관계자 그룹의 기대와		

				요청의 반영 방법 - 어항 인프라의 해양생물 다양성과 청색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오후/ 15:00~17:30 - 청색어항과 어네지 효율, 자연기반해법, 부잔교 등 인프라 문제 협의 - 어항의 친환경 인프라 및 지속가능성	
	02.11(수)	스페인 비교		<워크숍+교육 2일차> ● 오전/ 09:00~14:00 - 스마트 어항: 디지털화, 자동화, 저비용 해법과의 관계 - 어항 관리 및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 해외 어촌어항 개발 협력 논의 ● 오후/ 15:00~17:00 - 필드트립: 비교 항구 및 배후부지 - 효율적 시장관리 방법, 수산물 양륙 등 어시장의 디자인과 활동	*한덕훈 연구위원 : “한국의 해외 어항개발의 현황과 국제협력 시사점-가나, 세네갈 사례 중심으로” 발표 및 2일차 세션 좌장으로 참여
	02.12(목)	스페인 비교		<워크숍+교육 3일차> ● 오전/ 09:00~15:00 - 어항 및 어시장, 유통가공업체 방문 - 중규모, 소규모 어항 방문과 청색어항 컨셉의 적용가능성 조사 <관계자 면담 및 업무 자문 회의> ● 오후/ 15:00~18:00 - 청색어항 교육아카데미, E-Learning 코스 개선 등 오픈 포럼 형태 - 아시아 청색 어항 가이드라인 현황 협의 - FAO 관계자 면담 -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사업 향후 로드맵 논의	
	02.13(금) 02.14(토)	한덕훈 연구위원	비고(16:50) → 마드리드(21:25) → 인천(19:35) → 부산(20:45)	● 오전/ 09:00~11:00 - 아시아, 중남미 해양수산 전문가 업무협의 - 2025 해양수산국제협력컨퍼런스 결과 공유 및 향후 사업 협의 등 ● 오후: 이동(차량 및 항공)	UX 7317 KE 0914 KE 1409
출장경비	성명	경비총액		경비 부담기관	특이사항**
	한덕훈	약 1,890,000원		KMI	1) 항공료 : 주최 측 제공 2) 일비 및 식비(나등급 기준)

				- 5박 7일 : \$609 3) 숙박비: 주최 측 제공 4) 기타 - 로밍비 : 10만원 - 여행자보험 : 10만원 - 선물구입비 : 25만원 - 회의비 : 55만원 - 차량 임차료 : 해당없음
--	--	--	--	---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업무협의)
업무①	02.09.(월) FAO 관계자 회의 및 유럽연합 전문가 업무협의
수행계획	☐ FAO 가치사슬팀 업무협의 (10:30~13:3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 Jose Estors(FAO), Leon(유럽어업통제감시청), 스페인 비고 항만청 - 아젠다: 청색어항 이니셔티브 워크숍 구성 및 진행 세부 고려 사항 업무 협의 ☐ 유럽연합 어업통제감시청(EFCA) 업무협의 (15:30~18:0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 Leon(유럽어업통제감시청) 등 - 아젠다: 유럽연합 어업통제감시청의 유럽해역에서의 감시활동 및 아프리카 등 제3국과의 협력 현황 및 사업 업무협의
수행결과	☐ 유럽연합 어업통제감시청(EFCA) 업무협의 (14:30~17:0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 낸시 스틸(EFCA 청장), Leon Bouts(유럽어업통제감시청 감시팀장), 헨더슨 (감시부팀장) 등 - 논의결과: 유럽연합 어업통제감시청의 유럽해역에서의 감시활동 및 아프리카 등 제3국과의 협력 현황 및 사업 업무협의 - 논의사항: 유럽어업 감시청은 유럽 주변의 해역에서 유럽 선박 및 제3국 선박의 조업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업무만이 아니라, 서부아프리카, 대서양, 지중해 및 흑해, 인도양까지 유럽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면 현지 도서국, 연안국과 공동협정을 맺고 공동단속활동을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대서양권역, 지중해 및 흑해 권역, 인도양 권역, 아프리카 권역 등으로 구역을 나누고 업무분장을 세분화하였음. 최근 아프리카와 인도양에서 IUU어업 관련 대응 활동이 다양해 지면서 관련 사건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어선을 활용한 해상범죄활동 즉 밀수, 불법이민, 마약밀매 등의 범죄가 상존하기 때문에 많은 역량을 이에 투입하고 있음. - 한국과는 과거 2013-2014년 IUU어업 사례가 있을 때 EU 해양총국을 통하여 협력을 한 것으로 사료되고, 2025년 가나에서 개최된 WMU-KMI IUU어업 대응 캡피쉬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협력사업을 통하여 앞으로도 많은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하기를 희망하고, 특히 아프리카 관련 사업은 EFCA에서도 확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기를 희망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②	02.10(화) 청색어항이니셔티브 워크숍 및 교육훈련
수행계획	□ 워크숍 1일차 (FAO가치사슬팀 업무협의 (09:00~17:3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 Jose Estors(FAO), Yolanda (FAO), Blasi Caballo (FAO), 아프리카, 아세안, 중남미 공무원 및 전문가 등 - 아젠다: 청색어항에 대한 통합적 필요와 이해, 계획 절차 [오전 : 강의+포럼/ 09:00~14:00] - 청색어항으로 이행, 필요성, 통합적 접근법과 계획 - 이해관계자 그룹의 기대와 요청의 반영 방법 - 어항 인프라의 해양생물 다양성과 청색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오후 : 강의+토론/ 14:00~18:00] - 청색어항과 에너지 효율, 자연기반해법과의 연계, 부잔교 등 인프라 적정성 - 어항의 친환경 인프라 및 지속가능성
수행결과	□ 제7차 FAO 청색어항이니셔티브 워크숍 1일차 (FAO가치사슬팀 주관 (09:00~17:3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 Jose Estors(FAO 선임수산관), Yolanda Omana(FAO 수산관), Isabel Artime Garcia (스페인 농업수산물식품부 수산차관), Ruben Marin Gallego 비고항만청장, Ady Candra 인도네시아 어항국장, Nabil Anwari 모로코 수산국장, Mikah Nyaberi 케냐 몸바사 어항인프라국장(전 몸바사대교수), Gabriela Navarro 아르헨티나 수산자원국 부국장, Prinith 투바코 콜롬비아 수산국 팀장, Kailash Dunnoo 모리셔스항만국 팀장, Amed Khan 아프리카개발은행 재정관(AfDB)등 아프리카, 아세안, 중남미 공무원 및 전문가 약 40명 - 회의 아젠다: 개회세션(스페인 농수산부 및 비고항만 환영인사 기조연설), 본세션 (청색어항에 대한 통합적 필요와 이해, 계획 절차) 1. 개회세션 □ 개요 (Isabel 수산차관) FAO 주관으로 스페인 비고(Vigo)에서 개최된 제7차 블루포트 이니셔티브 워크숍 참석자 환영함 (Ruben 비고항만청장] 비고항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며, 블루포트 교육조정센터 설립을 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해 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건물 제공을 약속함. 참여 항만 간 견고한 네트워크 구축과 경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

(Jose FAO 선임수산물관) 스페인 정부 및 관계 당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지원은 청색어항이니셔티브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언급함. 어항은 많은 연안 지역사회에서 경제·사회적 중심이며, 식량안보와 고용 창출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

2. 지속가능한 항만의 목표와 전략 (기조연설 Ruben 비고항만청장)

☐ 개요

- 어항을 경제·사회·환경적 차원으로 균형 있게 통합한 지속가능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2022년 승인된 「항만시스템 전략 프레임워크」이 3대 차원의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있음.

- 경제적 차원: 블루이코노미 성장 잠재력 활용 및 항만의 촉진자 역할.

- 사회적 차원: 일자리 창출 및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

- 혁신과 지속가능성은 모든 항만 정책과 운영을 관통하는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있음.

☐ 7차 BPI 워크숍의 핵심 주제는 어항 및 항구의 인프라이며, 인프라 계획은 이용자 및 지역사회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해야 하며, 사업 실패 방지를 위한 수요 중심 접근 필요함. 환경 고려, 에너지 효율성, 기후위험 대응 회복력(resilience)을 통합한 설계 필요성 강조. 스페인은 항만 인프라 개발에 관한 폭넓은 경험을 참가국과 공유할 의지를 표명함.

☐ 스페인 및 비고항의 역할

스페인 어선단은 총 8,324척으로 유럽 최대 규모(총톤수 기준)이며 비고항은 블루포트 이니셔티브의 선도 항만임. 비고는 연간 약 30,000톤의 신선 수산물 및 600,000톤 이상의 냉동 수산물 처리하고 있음. 또한 4,000명 이상의 직접 고용 창출함. 갈리시아(Galicia)지역은 122개 어항을 보유하고 있음.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해양 지속가능성과 연안 공동체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고자 함.

☐ 향후 과제

비고 교육조정센터 건물 이전 및 운영 개시를 위한 구체적 일정과 단계 설정 (개소 계획, 자원 확보, 거버넌스 구조 포함). 국제 참가자들을 스페인의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Puertos 4.0"과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 메커니즘 수립 계획 중 (공모 절차, 멘토링 체계, 연락 창구 지정 등).

3. BPI 워크숍 주요 세션 (오전)

강사: Wolfgang Hutter (덴마크 공대 교수), Nabil Anwari 모로코 수산물국장, Ady Candra 인도네시아 수산물국장 등

1) 2025년 국제 어항 가이드라인 개정

FAO는 1998년 보고서를 전면 개정한 어항 국제 가이드라인 최근 발표함. 어항은 일반 화물항과 달리 위생, 콜드체인, 경매 시스템, 양륙 동선 등 특수성이 큼. 총 11개 장, 4개 부록(본편 약 171쪽). 재난 회복력(Resilience), 유지관리, ICT·IoT 활용 내용 강화. 아르헨티나, 덴마크, 영국, 미국 등 21명 전문가 참여함. 핵심 내용은 어항은 화물항과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르며, 어업 특화 운영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2) 어항의 고유 운영 및 위생 요구 어선 양륙 방식은 수작업, 펌프, 크레인, 컨베이어 등 다양. 수산물 제품 흐름은 반드시 직선형(one-directional)이어야 하며 교차 금지됨. 콜드체인 유지가 필수적이며 청정 해수·담수 공급이 중요함. 선박·차량·인력 동선 분리 필요함. 3) 계획 수립과 이해관계자 협의 소유주, 어업협동조합, 지역사회, 정부와 심층 협의 필요. 확장·개량·신규 개발 단계별 전략 수립. 어장, 어획량, 선박 규모, 경쟁항 분석 필수. 계획·설계·기초문서(Basis Statement) 작성 권장. 4) ICT 및 디지털화 1980년대부터 전자경매 도입. 온라인 경매 시스템으로 글로벌 참여 가능. 일부 종에 자동 등급 분류 시스템 적용. IoT는 운영 효율성과 행정 통합의 핵심 인프라임. 5) 주요 해외 사례 (덴마크) Fraserburgh어항 : 대형 선박 수용, 해상풍력과 공존. 선박수리, shiplift, 얼음공장, 경매장 통합. 부두 확장 및 수심 증설 등에 특징을 보유 Thyborøn 어항 : 북해 인접 주요 어항으로 콜드체인 연속성 및 위생관리 강조하고, 효율성 기반 가격 결정함 Lerwick 어항: 2020년 신규 경매장 건설. 이해관계자 협의 기반 설계. Killybegs 어항 : 1,000m 이상 접안시설. 육상 제빙시설 없이 선박 자체 제빙 운영. Axim 어항 : 해변 양륙 후 방파제 부두 시장시설 갖춘 구조적 전환함. 6) 지속가능 건설 자재 및 해양 인프라 (1) 주요 자재 특성 -사석(돌): 지역 조달 가능, 재사용 용이 -콘크리트·철근콘크리트: 내염성 확보 중요 -강재/스테인리스: 위생·구조적 유연성 장점, -알루미늄: 내구성 우수하나 생산 탄소발자국 고려 필요 -아스팔트: 항만 재건 도로 포장 활용 -태양광: 에너지 효율 증대 (2). 덴마크 사례와 기후적응 전략 평탄하나 폭풍 영향이 큰 해안이 특징으로 “Build with nature” 전략을 적용하고 있음. 그레이 인프라 + 생태공학 통합하여 콘크리트, 비생물·생물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하고 있음. 중량 자재는 운송 방식이 환경영향 결정함. 해상 운송이 육상 운송보다 유리한 경우 존재. 콘크리트 인공암초 vs 자연 암석 선택은 지역 조건 의존함. 내부 고강도 + 외부 생태친화층 하이브리드 제안함. (3) 거버넌스 및 금융 조달에 지속가능성 기준 반영 필요하며 블루본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활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모니터링 필요함. (4) 결론적으로, 어항은 화물항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위생과 한 방향 동선 설계가 핵심으로, 자재의 선택은 맥락 기반 접근이 필요함. 지속가능성은 경제·환경·사회 3요소 균형이 필요함
--	--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고,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이 장기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어항의 설계를 향후 추진해야 할 것임. 4. BPI 세션 (오후14-18시) 본 세션은 해양공학의 기초 이론부터 지속가능한 항만 인프라 전략까지 폭넓게 다루었음. 파랑은 바람에 의해 생성되며, 바람파와 너울로 구분됨. 특히 파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프라중력파가 항만 공진을 유발할 수 있음을 설명. 장주기파는 항만 형상과 결합 시 수위 증폭과 강한 흐름을 발생시켜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며, 단파 차단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장주기 공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설계 측면에서는 결정론적 접근에서 확률 기반 설계로 전환해야 함을 제시하고, 설계수명 동안의 실패확률과 재현기간을 고려하며, 위험 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두며 진행하였음. 월파는 파고와 해수위의 결합 조건을 함께 분석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임.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로 진행되며, 어항과 항만의 건설은 연안 표사 이동을 변화시켜 침식과 퇴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샌드 바이패스, 퇴적물 트랩, 수치모델링 등이 대응 방안으로 제시됨. 부유식 구조물은 해수면 상승에 유리하나 적용 조건에 한계가 있고, 준설은 "적게 자주 시행"하는 전략이 경제적·환경적으로 효율적임을 제시하였음. 인도네시아는 2045년을 목표로 블루이코노미 기반의 에코어항 구축 전략을 추진 중임을 발표하였음.  
업무③	02.11.(수) 청색어항 이니셔티브 워크숍 및 교육 훈련 참가
수행계획	□ 워크숍 2일차(09:00~17:0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발표 및 토론자, 워크숍+교육 참가), Jose Estors(FAO), Yolanda (FAO), Blasi Caballo (FAO), 아프리카, 아세안, 중남미 공무원 및 전문가 등 - 아젠다: 스마트 어항, 디지털화, 자동화, 저비용 해법 모색 [오전 : 강의+토론/ 09:00~14:00] · 한국 해외 어항개발에 있어서의 사회적 접근법 (한덕훈 연구위원 토론 참여) · 한국 ODA로서 해외 어항 개발 시 최근 경향 및 사례 · 어항 관리 및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 해외어항 개발 협력 논의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오후 : 필드 트립/ 15:00~17:00] · 비고항, 어시장, 상업용항구, 배후 경제구역 방문 · 효율적 시장관리 방법, 수산물 양륙 등 어시장의 디자인과 활동
수행결과	□ 워크숍 2일차(09:00~17:00) (날씨 관계로 3일차에 모든 필드트립을 시행하고 2월11일(2일차)에는 3일차에 계획된 향후 협력 논의를 포함한 모든 의제를 다루기로 함)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 Jose Estors(FAO 선임수산물관), Yolanda Omana(FAO 수산물관), Isabel Artime Garcia (스페인 농업수산물식품부 수산차관), Ruben Marin Gallego 비고항만청장, Ady Candra 인도네시아 어항국장, Nabil Anwari 모로코 수산국장, Mikah Nyaberi 케냐 몸바사 어항인프라국장(전 몸바사대교수), Gabriela Navarro 아르헨티나 수산자원국 부국장, Prinith 투바코 콜롬비아 수산국 팀장, Kailash Dunnoo 모리셔스항만국 팀장, Amed Khan 아프리카개발은행 재정관(AfDB)등 아프리카, 아세안, 중남미 공무원 및 전문가 약 40명 - 2일차 워크숍 결과 1. Blue Ports Initiative 현재 진행 현황 및 향후 방향 협의 스리랑카, 상투메프린시페, 기니(코나크리), 콜롬비아가 신규 참여국으로 합류함. 본 이니셔티브의 성공은 비고(Vigo)항, 참여국 정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파트너기관, 국가들의 적극적 참여에 달려 있음. Kisswise, Forum Océano,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EU 등과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도 논의함. FAO 수산위원회(COFI) 등 국제회의서 회원국의 지지가 향후 공식 의제 채택과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함. 2. “Blue Port” 정의 및 KPI 개발 청색어항을 단순 규모가 아닌 사회·환경·경제적 기준에 따른 매트릭스로 정의하는 제안이 제시됨. 국가 전략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KPI) 개발이 필수적임. KPI 개념을 작성하여 회원국 의견 수렴 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구체화 예정. 완성 후 시범항에 적용하여 “Blue Port Plan” 수립 가능 3. 소통, 지식공유 및 역량강화 공식 웹사이트 업데이트 및 신규 콘텐츠 게시. “우수사례 저장소(repository of good practices)” 및 “Who’s Who 디렉토리” 구축 추진. 홍보영상 제작 완료. 디지털화, 지속가능성 등 주제별 웨비나 2개년 계획 초안 FAO가 준비 예정. 4. 향후 논의 주제: 수산업에서의 여성의 청년과 고령층의 역할, 가치사슬 개발,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에너지 대응 문제 등 (상기 토론에 한덕훈 연구위원 참여하여, 어항의 인프라 측면도 자연기반해법고려 필요, 우수사례의 저장도 중요하나 상호 전파를 위한 온라인아카데미 활성화, 수산업에 있어서의 여성어업인의 기여가 중요하고 한국의 가나여성어업인 사업도 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향후 워크숍 진행 필요.. 콜드체인 어획후 가치사슬 제고 우수사례도 한 사례로 제시)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4. 협력, 시범사업 및 자원조달

콜롬비아 투마코, 상투메프린시페, 인도 등에서 BPI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아르헨티나는 IMO의 GloLitter 프로젝트와 협력 제안. IMO 프로젝트, ALDFG(유실·폐기 어구) 사업과의 연계 논의.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금융기관이 잠재적 자원 제공 기관으로 언급됨.

5. 포용성 확대 및 어항 트위닝(Twinning)

성평등뿐 아니라 고령 인구 문제까지 포용 범위 확대 제안. 어항/항만 간 자매결연(트위닝) 프로그램 도입 논의. 거버넌스, 콜드체인, 환경관리 모범사례 공유. 자원 확보가 주요 과제로 지적됨.

6. 향후 워크숍 및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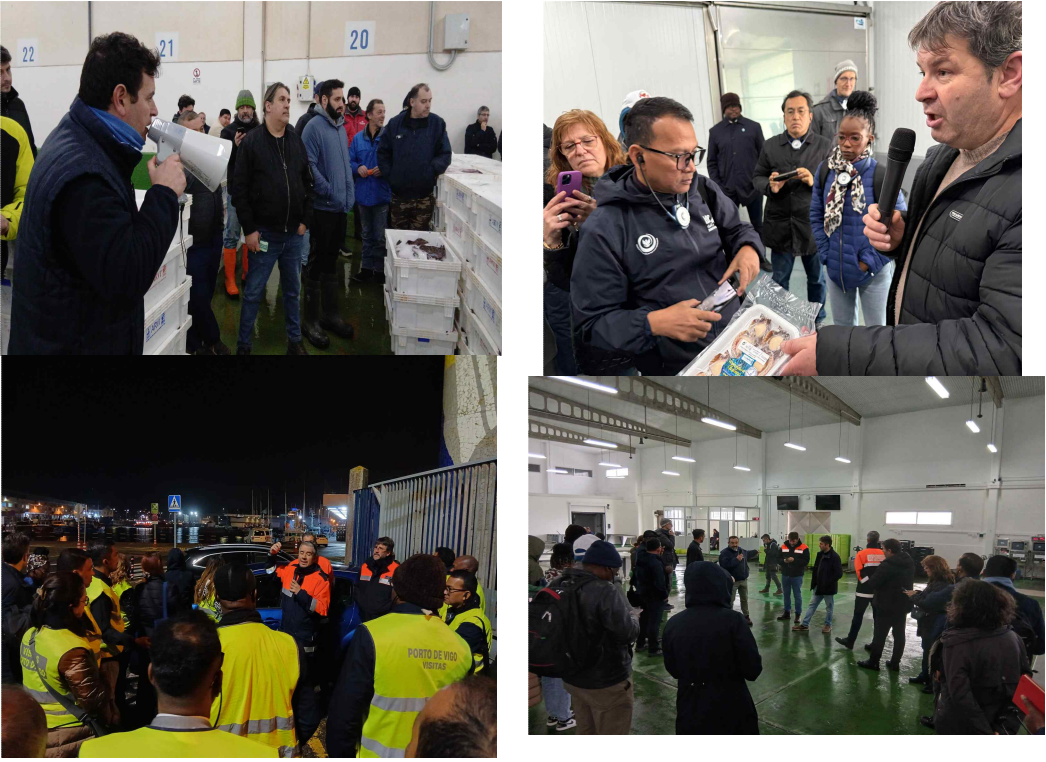
차기 워크숍 주제는 미확정.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어항설계 관련 출판물 3개월 내 발간 예정. 중국(5월), 인도네시아, 케냐 등에서 향후 대면회의 검토 중.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③	02.12.(목) 워크숍 및 교육 훈련 참가, FAO 관계자 업무협의
수행계획	□ 워크숍 3일차(09:00~15:0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워크숍+토론+교육 참가), Jose Estors(FAO), Yolanda (FAO), Blasi Caballo (FAO), 아프리카, 아세안, 중남미 공무원 및 전문가 등 - 아젠다: 거버넌스 및 자금 조달 / 아시안 청색 어항 가이드라인 설계 [오전+오후 : 포럼+그룹 활동/ 09:00~15:00] · 중규모, 소규모 어항 방문과 청색어항 컨셉 적용가능성 인터뷰 및 조사 □ FAO 관계자 업무협의(15:00~16:0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주재), Jose Estors(FAO), Yolanda (FAO), Blasi Caballo (FAO), 아프리카, 아세안, 중남미 공무원 및 전문가 등 - 아젠다: FAO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향후 로드맵 논의 - 26년도 청색 어항 연간보고서 추진 방향 협의 - 아시안 청색어항 가이드라인 현재 추진 현황 점검
수행결과	□ 워크숍 3일차(06:00~15:00) [오전/오후 : 필드 트립/ 06:00~15:0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 Jose Estors(FAO 선임수산물관), Yolanda Omana(FAO 수산물관), Isabel Artime Garcia (스페인 농업수산물식품부 수산차관), Ruben Marin Gallego 비고항만청장, Ady Candra 인도네시아 어항국장, Nabil Anwari 모로코 수산물국장, Mikah Nyaberi 케냐 몸바사 어항인프라국장(전 몸바사대교수), Gabriela Navarro 아르헨티나 수산자원국 부국장, Prinith 투바코 콜롬비아 수산물 팀장, Kailash Dunnoo 모리셔스항만국 팀장, Amed Khan 아프리카개발은행 재정관(AfDB)등 아프리카, 아세안, 중남미 공무원 및 전문가 약 40명 · 비고항, 어시장, 수산물 경매장소, 민간 유통처리시설, 상업용항구, 배후 경제구역 방문 · 효율적 시장관리 방법, 수산물 양륙 등 어시장의 디자인과 활동. 경매절차 직접참관 및 수산물 처리절차 논의 · 비고 인근 CAMBADOS 어항 (약 1시간 북서쪽 방향 거리) 방문하여 소규모어업인 및 어촌커뮤니티의 어항 개발 사례 와 운영현황 현장 방문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④	02.13.(금) 아시아, 중남미 관련 전문가 업무 협의
	□ 아시아 중남미 어촌어항 전문가 자문 회의(09:00~11:0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주재), 아시아 중남미 동 워크숍 참여 대표단 및 외부 전문가 등 6인 - 자문 내용 : 어항 국제개발협력 논의 -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 대상 해양수산 국제협력컨퍼런스 결과 공유 및 향후 사업 협의 등
수행결과	□ 아시아 중남미 어촌어항 전문가 자문 회의(10:00~11:0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주재), Ady Candra 인니어항국장, 마레조 인니 어항과장, 마이홍 베트남 농업부 수산국 국제협력 팀장, 안타나 태국 수산자원부 어구전문 팀장 등 6인 - 자문 내용 : 각국의 어항 개발 현황 및 국제개발협력 방향 논의 - 인도네시아 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아시아 국가 대상 해양수산 국제협력컨퍼런스 결과 공유 및 향후 사업 협의 등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

[별첨 1] 2026 7차 Blue Ports Initiative 워크숍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Seventh Blue Ports Initiative Workshop

Vigo (Spain), 10th – 12th February 2026

Introduction and Background

The [Blue Ports Initiative \(BPI\)](#) supports the transformation of fishing ports into drive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by integrating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governance considerations into port planning and operations. The initiative aims to strengthen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ports while promoting inclusive and sustainable practices that generate tangible benefits for local communities and contribute to resilient fisheries value chains.

Fishing ports from **approximately 20 countries** participate in the initiative, jointly advancing a shift in both strategic and operational approaches toward becoming *Blue Ports*—that is, sustainable, efficient, and socially responsible fishing ports. To support this transition, BPI members collaborate through a wide range of activities, including knowledge exchange, technical support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strategic port development plans, and enhanced communication and outreach efforts.

Within this framework, the initiative convenes **annual workshops** to enable dialogue, peer learning, and joint reflection on emerg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related to sustainable port development.

- The **first workshop** (June 2019) focused on global stock-taking and identifying best practices for applying the Blue Growth Strategy in fishing ports.
- The **second workshop** (October 2020) examined the social dimension of sustainability and its implications for port development.
- The **third workshop** (June 2021) further advanced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initiative.
- The **fourth workshop** (July 2022) explored key sustainability challenges and established working groups to develop targeted, country-driven solutions.
- The **fifth workshop** (November 2023, Tangier, Morocco) brought together all BPI focal points to deepen the discussion on city-port interactions and to finalize the multi-year BPI work plan.
- The **sixth workshop** (December 2024, online) focused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esilience of fishing ports.

Building on the outcomes of the sixth workshop, the **seventh workshop** will explore in greater depth the theme of **port infrastructure**, recognizing that infrastructure gaps remain one of the principal bottlenecks to advancing the blue economy. The workshop will examine infrastructure design and planning processes through a user-centred lens, integrating environmental and operational considerations. Participants will explore case studies from diverse contexts and take



part in field visits to fishing ports of varying sizes, enabling direct observation, exchange with port users, and the identification of practical lessons learned and actionable best practices.

Outcomes and Outputs

Outcome 1	Output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blue fishing ports to design and implement resilient and sustainable infrastructure.	1.1. <i>To identify key design principles for resilient infrastructure, including stakeholder participation, materials selection, site location, and overall design considerations.</i> 1.2. <i>To acquire methodologies and tools for undertaking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s in the context of fishing 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i> 1.3. <i>To enhance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fishing ports through improved planning, design, and management practices.</i>

Outcome 2	Outputs
To strengthen the BPI's capacity to effectively support fishing ports in advancing sustainable and inclusive development.	2.1. <i>To provide an update on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BPI work plan.</i> 2.2. <i>To present progress on the development and rollout of the BPI e-learning courses.</i> 2.3. <i>To strengthen collaboration and knowledge-sharing among participants.</i> 2.4. <i>To discuss and agree on the BPI work plan for 2025, including consideration of specific proposals to be presented.</i>

Participants

The 7th BPI Workshop will invite participants from:

- Port Authorities and national Fisheries Authorities that have participated in previous BPI workshops.
- Port Authorities and national Fisheries Authorities interested in joining the BPI.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at least one of the participants** is involved in decision making processes and/or experience regarding fishing port infrastructures

Program

The program will be structured into two sessions, each focusing on one of the workshop outcomes, with both sessions being interrelated. **All times are in Central European Time (CET), aligned with Spain time.**

Tuesday 10th February 2026

Time (CET)	Topic
09.00 - 09.30	Welcome remarks
09.30 – 09.35	Introduction to the Workshop <i>Jose Estors, Fisheries Officer, NFIMV, FAO</i>
09.35 – 11.00	Planning process. Understanding and integration needs and uses in a fishing port <i>Market demand requires different and often competing uses of fishing ports. These ports are not only landing sites for fishing vessels, but also multifunctional spaces that accommodate a wide range of activities and services. As such, they need to respond to the expectations and requirements of different stakeholder groups.</i>
Coffee break	
11.30 - 14.00	Impact risk assessment <i>Recognizing how infrastructure can strengthen ports' climate resilience and promote social inclusivity through effective solutions is crucial for sustainable planning. Also providing solutions to minimize potential impact of infrastructures regarding biodiversity and economy.</i>
14.00– 15.00	Lunch
15.00 – 17.30	Eco design in a fishing port <i>Implementing eco-design in fishing ports integrates include: Eco friendly materials and infrastructures (floating docks, eco concrete, others), Nature based solution, energy efficiency</i>
End of the session	

Wednesday 11th February 2026

Time (CET)	Topic
09.00 - 11.00	Smart fishing port; Digitalization and automatization, low cost solutions <i>A smart fishing port enhances efficiency of port activities through digital technologies, automation and low cost solutions for process optimization.</i>
Coffee Break	
11.30 – 12.30	Governing infrastructures in a fishing port: city port and financing.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i>Effective infrastructure management necessitates the adoption of approaches and tools grounded in port governance, with the objective of minimizing conflicts and enhancing the positive outcomes for their intended functions. Furthermore, limited access to financing frequently constitutes a significant constraint for ports.</i>
12.30 - 14.00	Tour – visit to case studies at Port of Vigo
1400- 1500	Lunch
15.00 – 17.00	Practical Visit to the Fish Market <i>During the visit, participants will explore a fish market to understand its design and operation. The components considered in its planning, including unloading, storage, and sales areas, will be explained. The exercise will allow participants to see how technical and operational aspects are integrated for efficient market management.</i>
End of the session	

Thursday 12th February. Field visit to fishing ports

Time (CET)	Topic
	<i>Application of training concepts through the visit to two fishing ports of different sizes (medium and small).</i>
09.00 - 13.00	Field visits to fishing ports
14.00 - 15.00	Lunch
15.00	End of the session
The Blue Ports Initiative. Work plan	
15.00-15.10	Welcome and introduction to the Workshop.
15.10- 15.20	Update on the BPI workplan implementation.
15.25- 15.45	Blue Fishing Ports Academy. E learning course. New topics.
15.45- 16.00	Co design of the 2024 working plan
16.00	Open forum
17.00	End of the workshop

[별첨2] ANFACO (갈리시아 해양산업연합회)

ANFACO–CECOPESCA

<https://www.programapleamar.es/entidades-beneficiarias/anfaco-cecope-sca>

ANFACO-CECOPESCA

SUBSCRIBE TO THE
PLEAMAR PROGRAM
NEWSLETTER



ANFACO-CECOPESCA is an independent, national business organization, whose work focuses on the representation and defense of the interests of more than 245 companies belonging to all links of the sea-industry complex, thus forming a true cluster in the field of the agri-marine food sector. The global turnover of its associates amounts to about 7,300 million euros, employing more than 25,000 workers.

ANFACO-CECOPESCA carries out an important activity of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the seafood processing and canning sector before the different administrations, multilateral organizations and all types of entities, with the ultimate aim of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sector it represents.

The history of ANFACO-CECOPESCA as a business association dates back to 1904, when the pioneering 'Union of Manufacturers of Canned Goods of the Ría de Vigo' was created, so it has a centenary history as an employers' association in the fish and seafood canning sector, being the second oldest business organization in Spain.

CECOPESCA is a private state-wide Technology Centre integrated into the National Institute of Manufacturers of Canned Fish

[Cookie settings](#)